

전주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건립 '첫 삽'

전북성지화사업추진협, 기공식 가져

전북기독교성지화사업추진협의회(이사장 원팔연 목사)는 예수병원 예배실에서 전주시기독교근대역사기념관 기공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기공예배는 전북기독교성지화사업추진협의회 원팔연 이사장, 전주시의회 박병술 의장, 전북기독교총연합회 박종철 회장, 예수병원 권창영 병원장, 전북CBS 이일범 본부장을 비롯 여러 관계자가 참석, 1부 예배, 2부 기공 축하, 3부 테이프 커팅, 삼짚기 순서로 진행했다.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는 성경말씀으로 "호남에 기독교가 전파된 지 125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전주시기독교근대역사기념관 기공식을 갖게 되어 기쁘다"며, "기념관을 통해 우리의 역사를 거울삼아 과거를 돌아보고 예수의 사랑과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창영 예수병원장은 "20년 전에 예수병원의학박물관을 설립해 역사를 보존하고 있는 예수병원이 예수병원의 부지를 통해 전주시기독교근대역사기념관을 건립하게 되어 기쁘다"며, "지역사회의 기독교인들의 영적인 성장의 계기가 되는 공간이 될 것이다"고 환영사를 통해 축하했다.



전북기독교성지화사업추진협의회와 예수병원이 19일 전주시기독교근대역사기념관 기공식을 가졌다.

한편, 전주시기독교근대역사기념관은 예수병원 제1주차장 오른 편에 연면적 2,626.03㎡(794.37평),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건축되며 총사업비 80여억원 중 국비 24억, 시 14억, 도비 14억, 자부담 28억원

으로 전북선교 125주년을 맞아 전북 기독교계와 성도들의 숙원사업인 전북기독교성지화와 기독교기념관 사업은 기공예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 될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영태 기자

고향에서 야구 팬들을 만나다

오승환, 정음서 야구 꿈나무 대상 재능기부·사인회

미국 메이저리그 콜로라도 로키스에서 투수로 활약 중인 오승환 선수가 19일 고향 정읍에서 팬 사인회와 함께 재능기부 교실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정읍시체육회(상임부회장 윤준호)가 야구 명문으로 위상을 다져가고 있는 이병중학교와 인상고등학교, 지역 유소년 야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야구선수들을 위해 마련했다. 오 선수는 이날 국민체육센터에서 자신이 사인한 볼을 야구 꿈나무들에게 전달하고 투구 폼과 투구 그립법 등을 지도했다. 특히 선수들과 캐치볼을 하며 미국 프로무대까지 진출하게 된 소중한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오 선수는 "고향 정읍에 와서 야구 꿈나무들을 만나게 되어 무척 기쁘다"며 "정읍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줄게, 우리나라 야구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태인 출신인 오 선수는 이날 저녁 아르코 웨딩홀에서 열린 '2018 정읍시 체육인의 밤'에서 '자랑스런 체육인상'을 수상했다.

체육인의 밤에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한 체육회와 종목 단체 임원, 읍면동 체육회장, 수상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유 시장은 "올 한 해 동안 정읍체육 발전을 위해 애쓰신 체육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기쁨의 순간을 되새기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체육인들의 화합과 정읍체

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또 "세계적인 야구선수로 활동하며 고향 정읍과 국위 선양에 기여하고 있는 오승환 선수의 고향 방문을 환영하고, 특히 바쁜 시간에도 재능기부와 사인회를 마련해준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고마운 뜻을 전했다. /정음=김대환 기자



무주종합복지관, 해피스쿨 종강식 개최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종합복지관(관장 이영재)에서는 19일 복지관 대강당에서 2018년 한해 진행된 프로그램을 되돌아 보고, 2019년 주요 사항을 안내하는 2018 해피스쿨 프로그램 종강식을 진행했다.

2018년 해피스쿨 프로그램에서는 어르신과 장애인의 배움의 욕구를 해소시키고, 즐거운 취미여가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한글교실 외 97개 프로그램이 2018년 2월부터 12월까지 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한해동안 다양한 활동으로 사랑나눔을 실천하는데 앞장선 우수자원봉사단체(무주군 헬프동아리, 무주군 이영주 교사, 무주새마을금고, 육군 제7733부대 4대대)와, 우수자원봉사자(김연화, 강유빈, 정보임)에게 감사장을 전달하였으며, 지역사회복지 발전에 힘쓴 공직자(무주군 사회복지과 이수민)에게 공로상을 전달하였다.

한편, 지역주민 및 단체(무주80동문회, 로이산업개발(주), 전형식, 박주희)의 후원으로 무주지역 중고등학생 5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가 참석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축사를 시작으로, 복지관 이용자 200여명이 참여하여, 프로그램 영상시청, 감사인사, 공지사향 안내 등이 진행되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 성덕면, 연말 맞아 어려운 이웃 위한 손길 줄이어

김제시 성덕면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줄줄이 이어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19일까지 성덕면에서는 관내 마을 및 경로당 주민들이 460만원 상당의 성금을 기탁했다.

최근 성덕면 고상영씨는 지역 내 저소득층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시가 300만원 상당의 백미 10kg 100포를 기탁했다.

고상영씨는 매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물품 기탁 및 성금 전달, 지역사회복지 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무주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교육생 수료식

무주군은 19일 안성면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에서 2018년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교육생 수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수료생과 가족, 그리고 무주군과 귀농·귀촌협의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수료증 수여식과 기념촬영 등에 함께 했다.

수료생들은 "2년의 인생을 꿈꾸며 보낸 무주에서의 지난 시간들을 잊지 못할 것"이라며 "아직은 미숙하지만 시간 보고, 듣고, 직접 해보며 몸과 마음에 새긴 시골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앞으로 귀농살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 성덕면, 민관 합동 청소년 선도 캠페인

김제시 성덕면(면장 신현순)은 지난 18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선도도원 및 주민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 합동 청소년 선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선도활동은 성덕초등학교, 지평선중·고등학교, 관내중심지역 위주로 가두캠페인을 하면서 학교폭력 근절 및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의 취지를 설명하는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 도동동 자율방범대, 행정복지센터에 쌀·라면 기탁

한해를 정리하는 연말을 맞아 남원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마음이 이어지고 있다.

남원시 도동동 자율방범대(대장 최용범)는 지난 17일 백미 30포(10kg 들이)와 라면 20box를 도동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으며, 남원시 환경사업소 직원들도 18일 주생면에 있는 경로당에 쌀 20포대를 전달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였다.

도동동 자율방범대는 1999년 창립해, 매년 백미, 라면 등 다양한 이웃돕기 물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남원=김기투 기자

온주현 김제시의장, 민주평통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제8대 김제시의회 온주현 의장이 19일 전주시 르윈 호텔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온주현 의장은 2010년 7월부터 현재까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김제시협의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또한 3선의 시의원으로서 제6대 행정지원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제7대 안진개발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공헌했다는 것과 현재 제8대 김제시의회 의장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시민에게 힘을 주는 의회'를 구현하며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온주현 의장은 "평화통일에 대한 바람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것뿐인데 큰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통일문제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며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조규철 고창군의회 의장, 민주평통자문회의 의장 표창

고창군의회 조규철 의장이 19일 정주르윈 호텔 백제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표창 수여식에서 의장(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조규철 의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실시하는 통일 교육 및 관련 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협의회 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통일기반조성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규철 의장은 "뜻 깊은 상을 받게되어 영광스럽다"면서 "복잡한 남북상황에 발맞추어 6만여 고창군민의 통일에 대한 열망을 하나로 모으는데 앞장서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체양군 공보담당관, 공무원동호회 탁구대회 개인전 우승

군산시청 체양군 공보담당관이 제7회 전라북도 공무원 동호인 탁구대회에서 개인전(선수~5부)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5일 장수군 한누리체육관에서 열린 제7회 전라북도 공무원 동호인 탁구대회에는 도내 13팀 2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해 그간 갈고닦은 기량을 겨뤘다.

이번 대회의 개인전은 삼급부인 선수~5부, 6부, 여성부 3개로 나누어져 경기가 진행됐으며 여성부 개인전에서는 군산시 보건소 소속 박수정 직원이 우승했다.

군산시청 탁구동호회 회장으로서 활동 중인 체양군 공보담당관은 평소 업무로 인해 훈련 시간이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틈틈이 훈련을 통해 실력을 다져왔으며 이번 대회 결승전에서 고창군청 직원을 3대0으로 제압하고 개인전(선수~5부)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체양군 공보담당관은 "꾸준한 연습과 훈련이 개인전 우승을 거머쥘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며 "업무 중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직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활기찬 동호회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북경찰청, 완산초교 일대 주민 대상 사랑의 연탄나눔

전북지방경찰청은 19일 전주시 완산구 완산초등학교 일대에서 지역주민에게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연말연시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웃 주민을 찾아 작지만 따뜻한 정을 나누는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로 전북청 경무과 직원과 경찰발전위원회 등 25명이 함께 참여해 총 2,200장의 연탄을 직접 배달했다.

봉사활동을 마친 직원들은 "추운 날씨에도 작은 정성과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뜻 깊은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작은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강석훈 기자



무주경찰, 운수업체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무주경찰서(서장 윤종섭)는 지난 18일, 무주군 소재 반딧불해의관광 등 운수업체 3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화물차 및 관광버스의 음주사고는 대형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운전자 등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시켜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하였다고 설명했다.



무주=전문선 기자